

'5·18 정신' 미얀마 너머 세계로 확장했다

민주항쟁 지지 조직 결성·시민 자발적으로 3억1000만원 모아
현지 시민사회활동 직간접 지원·국제적 연대 활동 확산 지원 등

'미얀마 광주연대' 1년의 성과·활동

'미얀마 광주연대'가 지난 1년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5·18정신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얀마의 처참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40년 전 5·18민주화운동을 소환하면서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얀마를 돕기 위한 모금에 나섰다. 5월 광주정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16일 미얀마 광주연대 운영을 맡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후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미얀마 쿠데타 1년,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미얀마 쿠데타 1년을 맞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국내 연대활동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내 각 지역 미얀마 민주화 연대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연대 활동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및 미얀마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자문을 맡고 있는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미얀마 쿠데타 이후 1년간 상황분석과 전망' 주제로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폭력과 코로나 19로 인한 심화된 보건 위기, 이에 대한 민주진영 및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얀마 상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꼬 표(Ko Phyo)' 버마 봄 혁명 전선 활동가가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로 미얀마 시민사회가 지난 1년간 해왔던 민주항쟁의 내용과 국제 사회에 대한 요청, 앞으로

의 계획 등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이 '서울에서의 미얀마 민주항쟁 연대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결성, 활동 그리고 2022년의 계획', 남궁희수 경남이주노동복지센터 기획행정실장은 '경남-창원지역의 활동 성과와 과제', 이기봉 5·18기념재단사무처장은 '미얀마 광주연대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중 미얀마 광주연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광주의 힘을 모아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조직(미얀마 광주연대)을 결성한다. 전국 어느 지역의 연대 모임보다 강력한 추진을 보였다.

지난해 3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미얀마 광주연대는 5·18민주광장에 그림 전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민주광장에서 지지집회를 시작했고 미안마인들의 집회에도 연대했다. 특히 5·18 주먹밥 정신으로 성금 모금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414명의 개인과 147곳의 단체를 비롯 약 266명의 성금(1961건) 등을 통해 총 3억 1000여만원이 모금됐다.

광주연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얀마 민주항쟁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미안마 노동자·유학생들의 지속적인 집회에 연대·지원을 이어가며, 5·18정신을 계승해 국제 연대를 확대해 미얀마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미얀마 300일간의 기록 전시회 '1980 Gwangju = 2021 Myanmar' 도록을 제작했다. 이 도록은 소량 제작돼 미얀마 연대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도록 자료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16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열린 '미얀마 쿠데타 1년,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미얀마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전기차 탑재 리튬이온배터리 안정성 향상 조선대 강현철 교수 연구팀 기술개발 주목

국제학술지에 우수 논문 게재

전기차에 가장 많이 탑재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지역 대학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강현철 교수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종원 교수 연구팀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설계하고 시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과 방전과정에서 조절이 쉽지 않은 주상결정이 형성되고, 매우 큰 부피 변

화가 일어나 충전용량과 수명이 단축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다공성 카본 뼈대를 접목한 시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낮은 기공효율과 불균일한 리튬도금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 기판에 매우 얇은 은을 증착한 후 금속-유기물 뼈대로 구성된 전극을 설계해 매우 우수한 충전 및 방전 안정성을 구현했다.

실시간 방사광 X선 회절 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은 원자가 리튬이온과 반응해 리튬-은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전극의 모든 영역에서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됨을 규명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독립운동가 출신 교사들의 영웅적인 삶

전남교육청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펴내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해방 후 교사가 돼 전남교육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 다룬 책이 나왔다.

전남교육청이 발간한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는 전남교육의 디딤돌이 된 교사들의 영웅적인 삶을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전남의 학생들이 성진회, 무등회, 무등독서회 등 비밀조직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데에는 민족의식을 함양한 교사

들의 역할이 컸다.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교사가 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신생독립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데 앞장섰다.

학교에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치고 학생독립운동 단체에 후원금을 내다 구속됐고, 해방 후에는 한글교본을 만들고 태극기 노래를 가르친 노근후

교사, 낯에는 학생을 밤에는 주빈을 대상으로 '사랑방 글방'을 설립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한 조규학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에는 일제의 악랄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요절한 교사도 있다. 무등독서회 활동을 한 박이섭 선생은 몽둥이 구타, 전기고문, 불인두 지지기 등의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출옥한 지 5년 만에 갓 부임한 학교에서 순국했다.

책 집필에는 초당대 박해원 교수, 순천복성고 백형대 교사, 광주예술고 신봉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남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서구, 평생학습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광주 서구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2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인문도시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할 평생교육기관·단체 또는 학습 동아리를 공개모집한다.

서구는 또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문학 주제의 교육단체 지원

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10개 동아리에 각 100만원 이내,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은 1개 기관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인문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6개 기관에 각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남구, 市 '부패방지 평가' 2연속 우수기관

광주 남구가 광주시 주관 '2021년 자치구 및 공직 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자치구 분야 1위에 올라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및 경영 성과 등 4개 평가 분야에서 3개 자

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남구 옴부즈만을 설치, 독립성을 비롯해 공정성과 신뢰성, 비밀보호 4대 원칙 아래 복잡·다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와 광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관계로 제외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